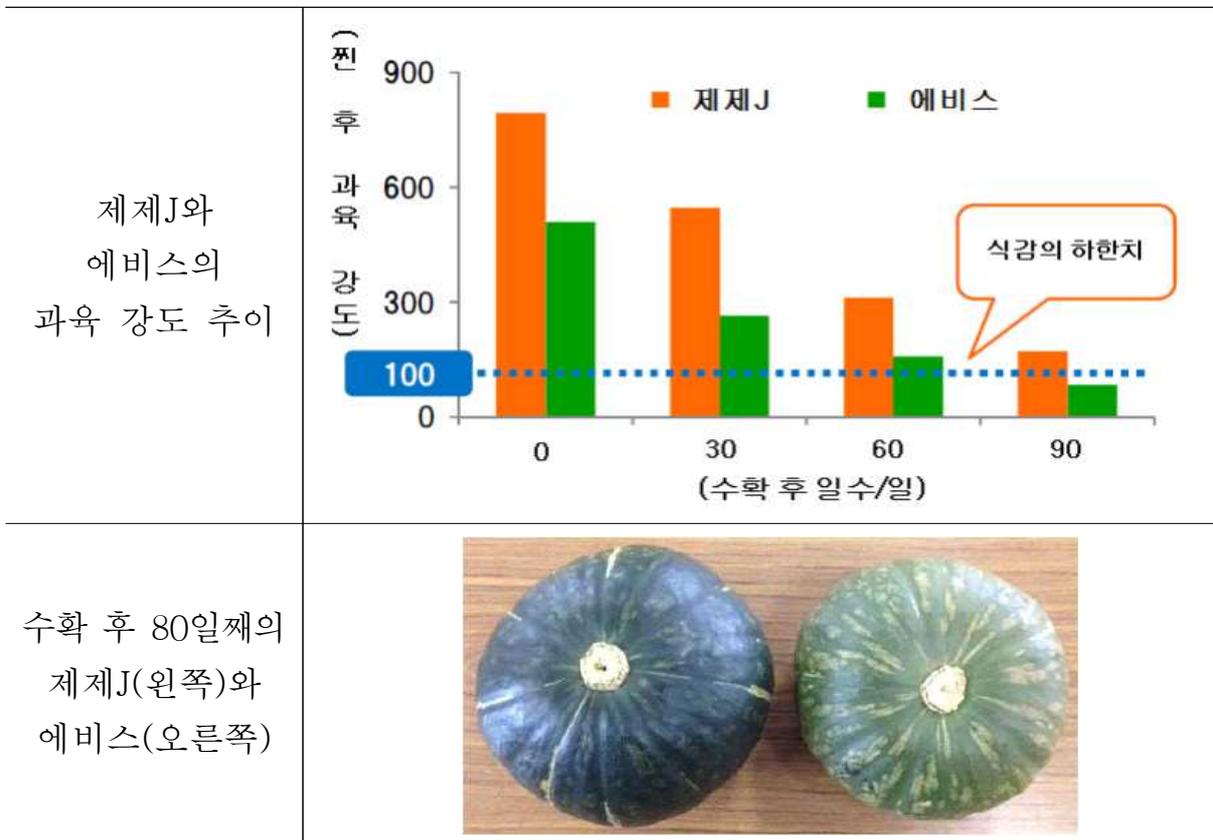


농업 연구기구 · 홋카이도 농업연구센터는 일본 단호박 시장을 수입품이 석권하는 12월~ 5월 일본산 호박 단경기에 안정적인 출하를 기대할 수 있는 신품종 "제제 J"를 육성하였음.

가격 침체와 단위당 수확량이 적다는 이유로 단호박 재배면적이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, 신품종은 단경기에 출하와 밀식재배가 가능하여 주목을 받고 있음.

◇ 80일간 저장 가능함

- 일본 국내산의 주류 품종인 에비스 단호박과 비교를 해도 일본인이 좋아하는 식감이 수확 후 90일까지 유지 가능하며, 색깔도 수확 후 80일까지 변하지 않음



◇ 출하 시스템

품종	8월	9월	10월	11월	12월	1월	2월
에비스	파종	-----	-----	수확	출하	일본산	단경기
제제J	파종	-----	-----	수확	저장	-----	출하

◇ 밀식재배가 가능함

- 신품종은 덩굴이 짧기 때문에 두렁 폭을 3m로 하여 밀식재배가 가능하며, 현재의 두렁 폭 4.5m에 비해 같은 면적에서 수확량이 1.4배 증가함

	
에비스 (두렁 폭:4.5m, 수확량:63개/a)	제제J (두렁 폭:3.0m, 수확량:95개/a)

◆ 시사점

- 대일 단호박 수출량은 최근 증가경향에 있으나 전체 일본 단호박 수입량 100만톤 규모의 1%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. 한국산은 수입산과 일본 국내산의 전환기인 7-8월에 집중 수입되고 있어 상기 품종 출현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, 일본시장 쉐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연중 공급체제 구축이 중요함.

<일본의 단호박 수입실적(2013년)>

	물량(톤)	금액(백만엔)	단가(엔/kg)
한국	942	90	96
러시아	157	5	32
미국	64	10	150
멕시코	47,383	4,418	93
뉴질랜드	53,061	3,524	66
통가	1,242	98	79
뉴칼레도니아	2,463	173	70
합 계	105,312	8,319	79

출 처 : 일본농업신문 (8.16), 가고시마현 농업개발종합센터